聚落立地에 대한 風水的 解釋*
— 九萬里 마을의 風水的 解釋을 媒介로 —

權 善 政**

《차 례》

Ⅰ.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Ⅱ. 風水의 定位
Ⅲ. 研究의 理論的 考察
1. 風水의 起源
2. 風水의 用語 및 論理體系
1) 風水의 用語
2) 風水의 論理體系
Ⅳ. 聚落立地에 대한 風水的 解釋
1. 研究地域
2. 聚落立地에 대한 風水的 解釋
1) 立地選定의 原理
가. 看龍法
나. 藏風法
다. 得水法
라. 定穴法
2) 施設物 配置의 基準—坐向論
3) 形局論
Ⅴ. 要約 및 示唆

Ⅰ.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最近 哲學, 史學, 環境學, 建築學, 物理學 및 地理學 등 제학문 영역에서 일고있는 東洋思想과 관련된 연구 분위기는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哲學이나 思想의 역할이 단순히 인간의 지적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고 당면한 時代的, 歷史的 狀況을 통찰하여 현실의 문제에 대답을 하는데 있다[1] 라는 것을 전제할때, 구체적으로 그러한 思想的, 哲學的 맥락에 얽혀있는 학문의 諸方法論에 있어서 補完이나 새로운 돌파구의 摸索이라는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地理學에서도 최근 10년 사이 東洋思想의 특히 땅에 대한 표현이랄 수 있는 風水地理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체로 風水思想과 관련된 既存의 제학문영역에서의 연구들은 風水를 우리민족이 지녀온 傳統的인 地理觀으로서 이해하고 그에 내포되어 있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2] 연구의 경향들이 대부분 一面的이면서도 制限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風水에 대한 個人的·社會的 通念과 近·現代의 학문의 전개과정속에서 그동안 風水의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風水를 一般人들이 받아들이듯 墓地의 選定과 관련된 陰宅風水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우선은 연구자 개인적으로 또 사회통념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 또 近·現代의 학문전개과정에서 西歐의 科學主義 思想에 기초하는 諸方法論이 학문의 主流的 雰圍氣를 형성함으로 인해 넓게는 東洋思想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더불어 風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

*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整理한 것임. 指導教授이신 崔昌祚教授님께 感謝드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課程 卒業.
1) 이명현, 1988, "내일을 바라보는 哲學의 실마리," 철학과 현실, pp.89~111.
2) 崔昌祚, 1991, "韓國 風水思想의 歷史와 地理學," 정신문화연구원 14권 1호, p.100.

그런데 既存의 연구들이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들어 오히려 風水에 대한 關心의 集中이라는 轉換的 雰圍氣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조건들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風水를 더이상 陰宅風水와 同一視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에 내포되어 있는 思想的, 合理的·實用的 측면, 過去의 理解나 現在의 景觀을 분석하기 위한 틀, 또는 計劃·應用 등의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연구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제학문영역에서 그동안의 西歐學問的 傳統의 바탕에서가 아닌 東洋思想에 기초하여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本研究는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風水地理學에 內包되어 있는 땅에 대한 論理를 聚落立地論的 입장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즉, 風水의 論理體系를 구성하고 있는 諸原理들을 累積的이고도 具體的으로 지속되어온 人間과 環境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진 땅의 理論이라 前提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合理的, 實用的 側面의 妥當性을 解釋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目的을 갖는다.

첫째는 地理學에서의 風水의 자리매김과 관련된 定位로서, 이는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接近의 意味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우선 風水가 언제·어떤 목적으로 발생·전개되었는가에 대한 起源과 立地論的 側面에서의 그 形式論理들을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風水地理學의 입장에서 聚落立地에 대한 解釋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風水에서 살피게 되는 제요건들을 보다 實際的, 具體的으로 떠올릴 필요성을 느끼므로 研究地域을 설정하여 현장에서의 드러남 여부와 관련해 살펴 보는 方法을 취한다.

II 風水의 定位

Joseph Needham에 의하면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地理學의 傳統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그 하나는 科學的이고 計量的인 地表記述科學(scientific and quantitative cartography)이고 다른 하나는 宗教的이고 象徵的인 博物誌(religious and symbolic cosmography)라는 것이다[3].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의 땅을 보는 안목이 合理的인 記述과 解釋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땅을 神秘하고 奇妙한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 실체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존되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가지 전통중 어느 것이 地理學에서 主가 되어왔는지, 또는 어떤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제쳐 두고라도 이 兩者, 즉 땅을 合理的으로 그러면서도 象徵體系로서 같이 이해하는 調和된 사고관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런점에 유의하여 本章에서는 '위의 兩者中 風水地理學은 어느쪽에 해당하는가'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구분으로 表出되는 思想的, 哲學的 맥락과 관련해 風水는 어떤 것에 기초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風水의 자리매김과 관련된 문제로서, 구체적으로 社會科學으로서의 地理學의 기초가 되어온 일련의 입장에 대해 風水가 東洋思想의 특히 땅에 대한 표현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東·西比較哲學的 맥락에서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물었던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게 답하고자 한다.

우선 東洋의 세계관은 機械的인 서양의 관점과는 對照的으로 '有機的'인 것이 그 특징이다. 東洋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감각에 비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상호관련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다 같은 窮極的 實在의 다른 양상 乃至 顯示에 지나지 않는다[4]. 또한 이 우주란 영원히 움직이고 살아있고 有機的, 精神的인 동시에 物質的인 하나의 不可分의 實在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론적 입장의 東洋의 사고방식을 특징지우는 認識論的 또는 方法論的 側面의 것은 서양의 '知性(假定에 의한 槪念)'이라는 것에 대해 '直觀'이라는 것이다[5]. 서양의 '假定에 의한 槪念'

---

3) Joseph Needham, 1959,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III, p.500.

4) Fritjof Capra, 1975, *The Tao of Physics : An Exploration of the Parallels Between Modern Physics and Eastern Mysticism,* Shambhala Publ, Boulder, Colorado, p.10.

5) 물론 이런 구별은 一般化 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구별이므로 이 구별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比較哲學에 있어서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동서의 철학을 특징짓는 일은 편리한 일이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구별은 비교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수용되고 있다.

은 演繹的 理論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全的 意味가 나타내는 概念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演繹的 理論이란 假定과 定理로 구분되며 假定은 論理的으로 定理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假定이 주어지면 定理는 證明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知性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전제는 主觀과 客觀의 分離이다. 주관과 객관의 분리는 分別的, 合理的 知識을 가져오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의식의 전체를 분화하는 主觀의 분립을 통해 客體的 對象을 重點的, 分析的으로 區分, 測定, 分類, 分析하는 과정을 거쳐 對象에 대한 앎(知)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해 東洋的 直觀은 '事物(對象)을 볼때 推理를 加하지 않고 經驗 그 自體를 그대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直觀은 主客未分, 主客合一의 상태에서 경험을 통하여 直接的으로 감지되는것—어떤 육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을 말한다[6].

推論的, 合理的인 것과 直觀的인 두가지 의식 또는 의식의 양태는 인간의 마음의 相互補完的 기능양식이다. 근원적으로 確實性(certainty)과 模糊性(ambiguity), 必然性(necessity)과 偶然性(contingency)이 공존하는 인간세계[7]에 대한 설명, 이해(앎)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두가지 의식 또는 의식의 양태는 구별되는 경향으로 작용하며 또한 그 세계에 대한 앎의 결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合理的, 推論的 思考는 直線的이며 分析的인 경향을 가지는데 이는 對象의 區分, 測定 및 分類를 기능으로 하는 知性의 領域에 속하며 그런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推論的, 理論的 知識이란 抽象的 概念들과 象徵들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概念이나 象徵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表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存在하는 對象과 그것을 意味하는 概念간에 어떤 因果的 關係가 성립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8] 단지 혼동될 뿐인 것이다.

이에 반해 直觀的 知識(眞理)은 覺醒의 漠然한 狀態(the state of expanded awareness)에서 일어나는 直接的, 非知性的 實在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綜合的이고 全一的(holistic-總體的)이며 非直線的인 경향을 지닌다[9]. 이러한 直觀에 의한 '直觀的 앎'으로서의 地理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곧 風水의 出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땅의 이치'를 말하는 地理를 파악한다고 할때 처할 수 밖에 없는 우선의 물음은 '땅은 무엇인가' 또 '땅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땅(존재)과 관련된 인식론적 기초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는 東·西洋 各己의 世界觀, 宇宙觀의 땅에 대한 표현, 관념과 관련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때, 西洋의 直線的 因果律에 의해 작동되는 機械로서의 世界라는 입장에 대해 東洋은 有機體的 世界觀, 宇宙觀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有機體는 생동하는 전체의 시스템으로서 全體와 部分이 상호작용하여 협력하면서 스스로의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창조적인 것으로 여기서의 시스템은 현상의 특성이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部分으로 還元될수 없는 통합된 전체를 말한다. 이러한 유기체적 입장과 관련해 볼때 우주—자연—인간—땅등은 하나의 生命體로서 그 자체내에 變化, 生成의 특성이 내재돼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有機體·生命體로서의 자연, 땅에 대해 直觀을 통한 直觀的 앎으로서의 그들의

---

6) 이와같은 견해는 中國哲學이 農夫의 관점에 의해 철학의 內容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제학문의 方法論까지도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풍우란의 입장과도 통한다. 여기서 농부가 관여하는 것은 그들의 농장과 곡식으로서 이들이 直接的으로 感知하는 것이고 중국철학자들은 사물의 直接的 把握을 그들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게 된 것이다.(Fung yu-lan, 1948,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Macmillan, New York, p.25.)

7) Olsson, G., 1978, "Of ambiguity or far cries from a memorializing Mamafesta," in Ley, D & M.S.Samuels, (eds.), *Humanistic Geography : Prospects and Problems,* Maaroufa Press, Chicago, pp.109~118.
Tuan, Yi-Fu, 1976, "Humanistic Geography," *Annals of AAG,* Vol. 66, p.273.)

8) 朴異汶, 1977, 現像學과 分析哲學, 一潮閣, pp.12~16.
최종덕 역, 1985,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 한겨레, pp.147~164.

9) Fritjof Capra, 1983, *The Turning Point-Science, Society and the Rising Culture,* Bantom Books, p.38. 李成範·具閏端 譯, 1985, 새로운 科學과 文明의 轉換, 범양사 출판부.

특성을 表現하려고 할때 어떤 方法들이 사용될 수 있겠는가? 물론 東洋의 사상가들에 있어서 그들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궁극적인 실재는 드러낼 수 있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우리의 언어나 개념의 근원이 되는 감각이나 지성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써 적절하게 기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東洋의 사상가들은 그들의 체험을 상호소통할 필요성이 있을때 부딪힐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몇가지 방법들이 東洋에서 발전되어 왔다. 가령, 神話의 형식을 빌어 隱喩, 比喩를 한다든가 逆說的인 言語의 表現으로 또는 精神的인 詩의 形式등으로 표현해 왔던 것이다. 東洋的 世界觀의 땅에 대한 觀念, 土地觀이라 할 수 있는 風水思想에 있어서도 유기체, 생명체로서의 땅이 "나는 무엇이요"라고 말해주는 地理를 直觀에 의해 파악한다고 했을때 그 표현양식은 비유라든가 이야기체계 (포괄적으로 神話의 체계[10])로서 이루어진다. 가령, 山을 지칭하는 風水用語로서 龍이라든가 논리체계상의 同氣感應論에서의 感應의 例, 形勢的 比喩로서 그 所應됨을 설명하고자 하는 形局論 등과 같은 比喩, 隱喩의 方法과, 傳說이나 說話로서 이어져 내려오는 風水的 表現들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유기체, 생명체로서의 땅에 대해 直觀에 의한 直觀的 앎으로서 地理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風水에서 파악하는 그 地理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風水說의 구성은 山, 水, 方位, 人間等 四者의 조합[11]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形局論, 所主吉凶論 등의 形式論理를 갖는다. 風水書에 따라서 이상의 일곱가지 형식논리중 어느 한 두가지를 강조, 중시하여 그것을 重點的인 風水內容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風水全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곱가지 모두에 대한 설명, 이해가 필요하다.[12] 이러한 綜合的, 全體的 입장에서 風水全體를 理解하고 실제로 지역(땅)을 대할때 直觀으로 파악되는 그 땅의 이치 地理는 重點的, 特徵的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즉, 지역의 특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山, 水, 形局 等)에 따라 그 外의 것은 부차적인 결정사항으로 고려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지역의 특성을 서술할때 風水各各의 論理體系上의 原理들이 어느 주된 부분으로 계속 귀결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地域을 구성하는 제반특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어진 環境的 條件만이 아닌 그러한 조건과 相互作用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하는 人間의 要素가 중요함은 周知의 사실이다. 인간행위는 그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의 狀況에 대한 理解 (主觀的 意味 subjective meaning)」를 理解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홍기 교수는 「한국적 Geomentality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한국인의 땅에 대한 인식구조 (geomentality) 저변에는 風水地理說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13], 崔昌祚 教授는 전통적으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의사결정자들은 風水思想이라는 공통의 공인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14] 이렇게 볼때, 촌락지역주민들의 主觀的 意味로서 자리잡고 있던 거주지역에 대한 의식구조는 충분히 風水的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가 風水라는 틀로서 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物理的 自然環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땅이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風水地理的 理解를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

10) 金容沃에 의하면 '神話는 우리삶의 意味體系이다.(Myth is the meaning system of our life.), 즉 神話는 經驗的 事實의 體系는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의 체계로 엮어지는 세계를 지배하는 意味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상실될 때 그 세계는 無意味하게 되어 버린다(金容沃, 1990, 백두산신곡, 통나무, p.18.)

11)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山·水·方位 세가지만을 제시해 왔으나 최근 人間要素의 중요성을 반영, 결국 風水의 구성을 四者의 조합으로 이해함.

12) 崔昌祚, 1986, "한국의 전통적 자연과 인간관," 사상과 정책 봄호, 경향신문사, p.35.

13) 윤홍기, 1987, "한국적 Geomentality에 대하여," 地理學 論叢, 第14號, pp.185~191.

14) 崔昌祚,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p.47.

III. 研究의 理論的 考察

1. 風水의 起源

生死者를 모두 포함하는 風水思想의 독특한 문화현상이라는 특징은 동양인의 生死觀, 靈魂觀이 작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으며, 그 자체에 죽은 사람을 위한 風水가 먼저인가 아니면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風水가 우선되는가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風水가 언제·어떤 목적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起源의 問題와 관련된다.

韓國風水의 기원에 대해서 中國으로부터의 傳來說과 韓半島 自體의 發生說에 대한 제이론들이 있는데, 崔昌祚 敎授의 「風水的 思考의 基本觀念」과 「論理構成을 갖춘 의미에서의 風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後者의 제 이론들은 한반도에 風水가 도입되기 이전에 싹터왔던 風水的 思考觀念을 기원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風水地理說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한국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그 傳來의 時期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것은 중국의 경우에도 風水思想의 구체적 이론체계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확립된 것인지 확실치 않음과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戰國時代 末期에 風水的 思考觀念이 발생하여 漢代에 이르러 특히 陰陽說이 도입되어 완전한 풍수원리를 갖추게 되며 한국에는 統一新羅 以後에 導入되었다는 이론이 많다.

윤홍기 교수에 의하면, 風水는 인간이 調和로운 構造物 (住宅, 都市, 聚落, 墓地 等)을 입지시킬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人間生態界 (human ecology)를 조정하는 物理的 環境을 개념화한 獨特한 理解體系이다.[15] 이런 의미에서 風水는 環境決定論과 마찬가지로 인간생활의 제측면에 작용하는 環境의 影響力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環境決定論에 있어서의 환경은 인간의 外部에 존재하는 客觀的 實在일 뿐이며 人間과 環境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들간의 外部的 影響 (external influence)에 의해 이해되는 關係的 特徵을 갖는다.[16] 이에 반해 風水에서의 인간과 환경은 하나의 潛在的인 精神的 統一體로서 환경의 인간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은 그것을 使用하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해 相互作用的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속에서 그 삶의 장소를 결정하여 생활유지를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삶에 필요로되는 氣候, 氣象條件이나 물의 요소는 必需的이다. 이것은 風水에서 말하는 바람(風)과 물(水)에 관련된 것으로 바람이란 氣候 또는 氣象으로 대체시켜도 무방하다.[17] 바람이나 물은 風水라는 用語의 語源이기도 한데 (經曰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故謂之風水[18]), 고대 동양인들은 바람이나 물로 대변되는 자연환경에 대해 그것의 否定的이고도 消極的인 영향력에 대한 逃避로서의 적응양식이 아닌 보다 積極的이고도 肯定的인 (生氣의 충만된 지역을 찾고자 하는) 영향력을 중시하여 대처해 나갔으며 이는 風水의 追吉避凶이라는 목적과 관련된 術法上에도 잘 나타난다.

風水는 인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母와 같은 역할을 하는 땅에 의지하여 생활의 발전을 얻고자 하는 東洋的인 地母 (the Earth-Mother)觀念의 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19] 이와같은 땅에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바람과 물의 조건은 필수적이며, 특히 죽은자들의 공간을 위해서 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소를 위해서 더욱 그렇다. 가령 편안한 睡眠空間을 위해 필요로 되는 防風, 매일매일의 생활에 절대적인 用水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生者의 居所를 취급하는 陽的인 風水가 死者의 居所를 다루는 陰的인 風水보다 기원적으로 먼저이고 후에 陰宅風水가 중시되었다는 논

15) Yoon, Hong-Key, 1976,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Asian Folklore and Social Life Monographs, No.88, Taipei, p.1.

16) Yoon, Hong-Key, 1982, "Environmental Determinism and Geomancy : Two Cultures, Two Concepts," *Geojournal 6.1,* pp.78~79.

17) 金蓮玉에 의하면 風은 바람, 즉 氣候(氣圈, atmosphere)를 가리킨다. (金蓮玉, 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 한국기후의 문화역사적 연구, 이대출판부, p.21.)

18) 『錦囊經』, 券之上, 「氣感篇第一」

19) 李丙燾, 1980, 高麗時代의 硏究 : 特히 圖讖思想의 發展을 中心으로, 亞細亞文化社, p.22.

리가 성립될 수 있다.[20]

그런데, 風水의 起源을 논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風水의 要諦라고 하는 氣와 관련된 論理體系들이다. 즉, 위와같이 양대분되는 입장에서 볼때 陽的인 風水 (陽基, 陽宅風水)와 陰宅風水의 차이점은 단지 局面의 넓이에 관련된 측면이 主가 될뿐, 生氣를 탈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함에 필요한 논리체계로서의 法術上으론 同一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체계들이 드러나는 風水의 典籍들을 통해 그 기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風水의 논리체계가 갖는 성격이 이러함에 유의하여 그 典籍들을 보건데, 戰國時代 末期에 발생한 風水的 思考觀念이 漢代에 이르러 陰陽說이 도입되면서 그 논리체계를 갖추게 되고 南北朝時代부터 宮宅에 관한 書인 宅經에 대해 陰宅의 理論(묘지상점의 방법)이 덧붙여지게 되는[21] 점으로 보아 生者와 관련된 陽的인 風水가 선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굳이 人間－環境間 相互作用속에서의 實用的 側面 또, 風水의 本質的 要素인 氣와 관련된 논리체계의 典籍上의 드러남이라는 理論的 側面을 分類하여 그 기원을 살펴보더라도, 生者의 居所를 취급하는 陽基, 陽宅風水가 死者의 居所와 관련된 陰的인 風水에 선행한다는 것은 역사상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風水의 用語 및 論理體系

(1) 風水의 用語

風水地理學에서 사용되는 用語는 西歐의 近·現代의 地理學에서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특이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은데, 陽基·陽宅·陰宅·龍·穴·砂·得破·坐向 등이 그것이다. 陽基·陽宅과 陰宅은 風水의 對象(生者, 死者) 如何에 따른 風水의 種類에 관련되는 槪念이고, 龍·穴·砂·得破·坐向 등은 風水의 內容과 관련해 사용되는 槪念이다.

風水의 種類에는 인체가 직접 토지에 닿게되는 風水가 대종을 이루었으며, 그에 의하여 風水의 對象如何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生者를 대상으로 하는 陽的인 風水(陽基, 陽宅)와 死者를 대상으로 한 陰的인 風水(陰宅, 墓地風水)로 大別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22]

風水地理說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地理說의 內容에 대한 물음으로, 『金彈子』에서는 「地理에서 땅을 보는 일은 모두가 龍이 主이고 穴이 다음이며 砂와 水가 또 그 다음이라고 말한다.〈言地理者咸曰看地以龍爲主穴次之而砂水又次之〉」[23]고 하고, 『山法全書』에서는 「風水說에 대해 요약하여 말하자면 龍穴砂水의 四法에 지나지 않는다.〈堪輿之說聚而言之不過龍穴砂水四法而已〉」[24]고 하여 龍, 穴, 砂, 水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雪心賦』는 「坐向方位에 대한 논리를 세우는 것이 地理의 이론으로서 처음이다.〈方位之說立始以地理之理〉」[25]라고 해서 方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風水의 內容에 있어서는 龍, 穴, 砂, 水, 方位 등과 관련된 개념들이 중요하다.

(2) 風水의 論理體系

風水를 傳統地理學이자 經驗科學으로 보는 입장 외에 迷信 또는 信仰으로 정의하는 예들이 있다. 일단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곧 迷信이라는 西歐的 共理를 벗어날 필요를 느끼면서도, 풍수가 迷信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은 그 論理體系에서 잘 나타난다. 즉, 氣感應的 認識體系를 구성하는 同氣感應論, 親子感應論이나 風水의 倫理性과

---

20) Yoon, Hong-Key, 1976, *op. cit.*, pp.245～251.

21) 李丙燾, 1980, 前揭書, p.28.
Andrew L. March, 1968, "An Appreciation of Chinese Geomancy," *Journal of Asian Studies* 27, pp.253～267.

22) 崔昌祚·朴英漢, 1978(a),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地理學 第17號, pp.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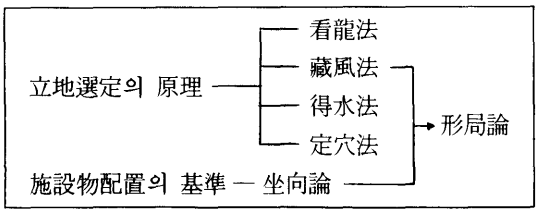
23) 『金彈子地理元珠經』, 「頭心法」(年代未詳, 上海, 校經山房)

24) 『地理大成山法全書』, 券之首上, 「龍穴砂水釋名稱說」, (年代未上, 上海, 九經書局)

25) 『雪心賦辯誤正解』, 辯論 30篇, 「地理辯」(1975, 臺灣, 竹林書局)

관련된 所主吉凶論이 그것이다.[26]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이 앞서 말한 동양적 우주관, 세계관과 관련해 동양의 신비가들이 처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의 표출이며 또한, 그것이 風水論理體系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때 風水論理全體를 非合理的이고 迷信的인 것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經驗科學的 論理體系를 구성하는 제이론들이 具體的인 立地點 (穴處, 明堂)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産業立地論에서의 立地決定時 順次的인 意思決定過程과 類似한 脈絡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氣感應的 認識體系에 속하는 形局論의 경우 그러한 구체적 장소에 대한 總體的 理解圖謀라는 면에서 충분히 合理的인 요소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중국풍수가 전래되어 한국의 고유한 풍토를 반영하는 한국풍수로 형성되는 초기단계부터 洪萬宗의 旬五志에 引用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利用厚生의 地理學 理論으로 시작되었다는 점과 관련해 볼 때에도 風水에는 땅과 관련된 實用的 側面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 쉽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상에서 본것처럼 經驗科學的 論理體系에 포함된 理論들과 形局論을 중심으로 그에 내포되어 있는 合理的이고 實用的인 側面들을 具體的인 대상지역을 떠올리면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논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자 한다. 우선 具體的 立地點을 찾아나가는 過程의 順序에 따라 看龍法-藏風法－得水法－定穴法을 「立志選定의 原理」로 또 그렇게 해서 찾아진 입지점에 「具體的 施設物을 配置하는 基準으로서의 坐向論」, 끝으로 그 지역에 대한 綜合的 理解・檢討를 위한 「形局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風水의 論理體系〉

Ⅳ. 聚落立地에 대한 風水的 解釋

1. 研究地域

研究의 對象地域은 행정구역상 「忠淸南道 錦山郡 福壽面 芝良 二里」의 지역이다. 九萬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으며, 본래 龜灣里로 불려지던 것이 九萬里로 되었다 한다. 대상지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都市化, 近代化로 인해 그 전통경관이 많이 훼손된 지역보다는 비교적 傳統村落으로서 風水와 관련된 부분(說話, 形局等)이 어느정도 現地住民에 의해 전속되어 왔고 또, 연구자 이외의 타인에 대해서도 風水的 說明이 容易한 지역을 선정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대상지를 選定한 理由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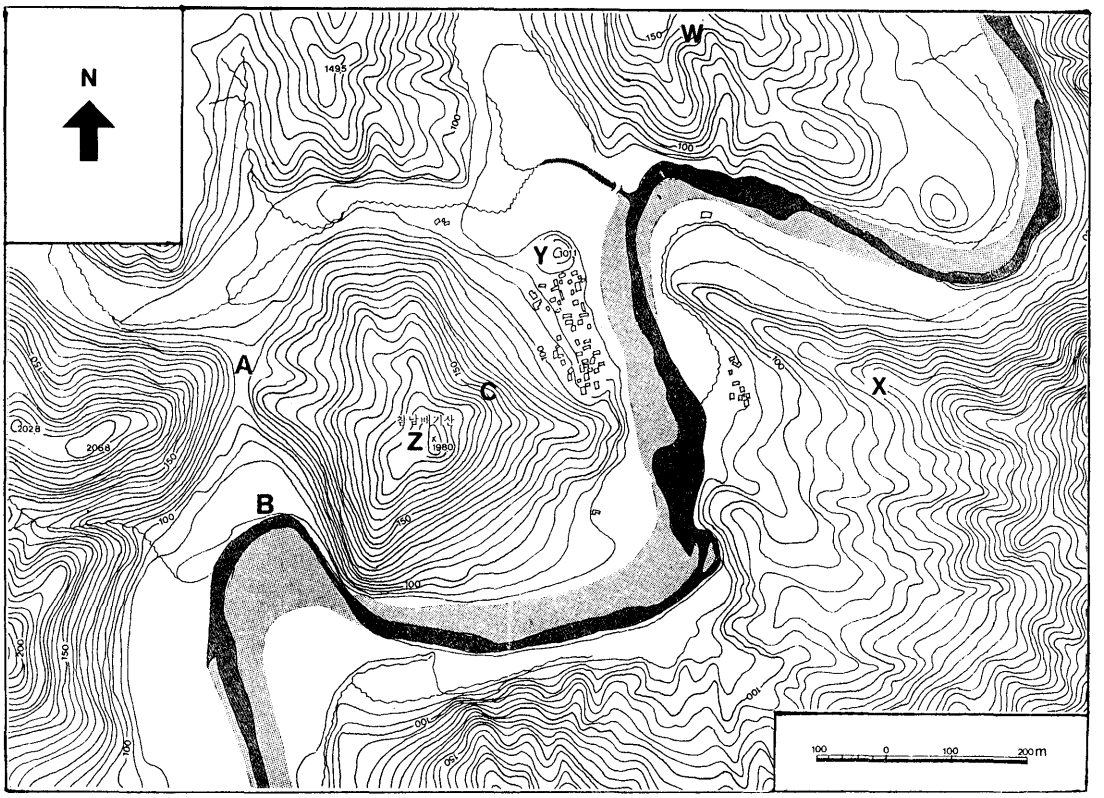
1) 이곳은 약 300년전 懷德黃氏(入鄕祖)에 의해 형성된 마을로 入鄕時 風水와 관련된 조건들이 入鄕祖에 의해 고려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지주민 대부분에 전해 내려온다.

2) 大田直轄市와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開發制限區域으로 설정된 까닭에 상당한 정도의 傳統景觀 (入鄕當時의 自然環境에 비추어 특히)이 유지되고 있다.

3) 研究者 이외의 他人에 대해서도 風水的 說明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본 연구가 風水에 의한 聚落立地論的 解釋의 이해도모를 위해 어느정도 風水와 관련해 눈에 띄는 지역을 선정하려 한 것과 관련된다.

선정된 九萬里는 入鄕이후 同族村落을 형성해 오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同福吳氏들의 정착에 의해 그 규모가 확대되어 거의 100餘戶 가량의 촌락을 형성하였다. 물론, 최근 들어 移村向都의 농촌전반적 분위기로 많은 수의 주민들이 떠나갔으며 지금은 30戶 정도가 살고 있다.

26) 感應論으로서 生氣感應, 親子感應, 同氣感應 등이 있는데, 「錦囊經」에 〈人受體於父母 本骸得氣遺體受蔭〉 〈是以銅山西崩靈鍾東應 銅出於銅山之山崩而鍾自鳴 亦猶本體同氣子孫 一福 皆自然之理也〉 〈木華於春栗芽於室〉등으로 잘 설명돼 있다.(『錦囊經』, 券上, 「氣感篇第一」)



〈그림 2. 九萬里 附近의 地形圖〉

2. 聚落立地에 대한 風水的 解釋

(1) 立地選定의 原理

가. 看龍法

風水는 땅속에 흘러 다니는 生氣에 感應받고자 하는 地理學으로 이 生氣가 흐르는 통로가 山이고 山을 龍 또는 脈 즉, 龍脈이라 부른다. 看龍法에서는 이러한 龍脈의 흐름의 좋고 나쁨을 龍의 根源地인 祖山으로부터 生氣가 멈추어 모이는 穴場까지 살피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龍속에는 감추어진 山의 精氣 즉, 地氣가 流行하는 脈이 있어 看龍에서는 龍을 體로 脈을 用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27] 모든 地家書에서는 龍의 根源地로서 즉, 生氣의 원천으로서 崑崙山을 들며 韓國風水에서는 崑崙으로부터 그 脈을 잇는 백두를 근원으로 삼는다. 그런데, 山의 根本을 崑崙에 두는 것이나, 崑崙으로부터 白頭山 또 白頭山으로부터 順次的으로 山脈勢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것은 象徵的 意味外에 실용적 가치는 거의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로는 主山 뒤에 이어지는 來龍의 적당한 범위 내에서만 龍을 살피게 된다.[28] 따라서, 看龍이라 함은 穴場에서 近距離에 떨어져 있는 名山으로부터 穴場까지의 龍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된다.

九萬里 마을의 來龍脈勢를 파악함에 앞서 새로이 設定된 祖山은 마을주민에 의해 大芚山(878m)으로 드러났는데, 〈山經表〉에 의하면 白頭山으로부터 대략적으로 鐵嶺－金剛山－珍富嶺－雪嶽山－五臺山－竹嶺－俗離山－德裕山을 거쳐 金南正脈을 일으키는 분수령인 馬耳山을 지나 북쪽으로 그 脈勢를 뻗치어 大芚山에 이르게 됨으로 太祖山 (白頭山)으로부터의 연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祖山인 大芚山으로부터 북쪽으로 數十里를 달려 마을의 뒷산인 참남배기산 (198m) 〈그림 2. Z〉에 이르니, 이것이 마을의 主山이다. 그런데, 數十里를 달려오

27) 崔昌祚, 1982, "風水說 坐向論上의 吉凶判斷에 관한 緯學的 解釋," 地理學 第26號, p.92.
28) 보통 마을의 구체적인 主山을 찾는데 「大東輿地圖」나 「山經表」가 유용하게 쓰인다.

던 龍脈勢의 기운을 한웅큼 主山으로 뭉쳐주려 했던 主山 뒷편의 束氣됨이 너무 강해서 〈그림 2. A〉 그 조화됨의 여부가 가히 만족칠 못한 듯하다.

府, 牧, 郡, 縣이든 自然部落이든 한국의 傳統的인 聚落中에서 그 立地가 風水的 影響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고을은 없는 듯하며 그 影響이 肯定的이든 否定的이든, 그 結果가 合理的이든 非合理的인 것이든 聚落立地와 風水가 깊은 關聯性을 맺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29] 『琢玉斧』[30]나 『陽宅大全』[31]등의 여러 地家書에서는 來龍의 規模에 따라 인간거주지의 규국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白頭山에서 시작하여 새로이 設定된 村落의 祖山을 지나 마을의 主山에 이르게 되는 龍脈의 흐름을 看龍한다함은 단순히 可視的 實體로서의 龍을 살피는 것 외에 일종의 象徵的 意味를 具體的인 立地點에 부여해줄 수 있는 條件이 덧붙여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居住地를 生存의 場所 이상의 어떤 것으로 즉, 場所가 어떠한 神秘한 屬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도록 해주는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은 場所의 象徵性은 東西洋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서구인들은 이를 genius loci 또는 the spirit of place 라고 부른다.[32]

地理學理論이란 풍토를 반영하는 땅의 논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땅에 한국의 풍토를 반영하는 땅의 논리를 적용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看龍法에서 龍脈勢를 살핀다고 할때, 可視的 實體로서 드러나는 龍의 흐름만이 아닌, 生氣의 運行이란 측면에서 脈의 이어짐을 중요시하여 看龍해야 하므로, 이때 山의 概念은 일반인에 의해 이해되는 地形學的인 山의 概念이 아닌 風水上 독특한 龍脈의 概念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즉, 風水에서는 一寸이라도 높으면 山이라 할 수 있고 一寸이라도 낮으면 水라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33] 저평하거나 평탄한 평야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률적으로 龍脈勢의 흐름이 끊겼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여 볼때, 風水說은 山地와 平野가 골고루 混在되어 있는 한반도 전역에 대해 그 논리를 적용시킬수 있는 의미있는 땅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藏風法

明堂周邊의 地形, 地勢에 관한 風水理論을 통칭하여 藏風法이라 하며 藏風은 青龍·白虎·朱雀·玄武의 四神砂에서 대종을 이루는데 즉, 明堂周圍의 山川을 살피는데 있어서 玄武·主山을 어느 산으로 할 것인가와 나머지 青龍·白虎·案山·朝山(朱雀)의 형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雪心賦』와 『錦囊經』에서는 이들 四神砂의 方向과 五行配定을, 『葬書』에서는 그 形勢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九萬里의 경우도 教科書的으로 前後左右의 四神砂概念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지역은 아니며, 위에 말한 바에 유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은 主山 (참남배기산)과 主山에서 左右로 그다지 길지 않게 뻗어나간 龍虎에 의해 감싸여 있으며, 특히 洞口가 있는 左側의 童山 (案山)은 外部로부터 이 마을을 자연스럽게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림 2. Y〉, 또 主山의 前面에는 마을앞을 흘러 右回하면서 빠지는 하천에 의해 양쪽으로 分離된 朱雀砂가 자리잡고 있어 먼길을 달려와 휴식을 취하려는 주인을 받아들이는 듯 하다. 또한, 마을을 포함하고 있는 당판은 龍虎에 의해 양팔로 포근하게 감싸안겨 있음으로 해서[34], 風水에서의 聚落立地를

---

29)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258.

30) 『琢玉斧』, 券之十二上, 「論陽基」〈陽基之龍 京都則數千里 省郡則數白里 州邑則百餘里 即市鎭鄕村亦必數十里 下此則力量必不重也〉

31) 『地理陽宅大全』, 券之五, 「陽宅大全入門要訣」, 論陽基龍穴砂水大概〈幹龍住居分遠近 千里爲大郡 二三百里可爲州 過此則封侯 百里只堪爲縣治 下此爲鎭市〉

32) Christian Norberg-Schultz, 1979, *Genius Loci :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London, p.5.

33) 『地理正宗』, 券三, 「撼龍經」, 總論篇, (1968, 臺灣, 端城書局), 〈高水一寸則是山 低土一寸水〉

34) 主山인 참남배기산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臥牛形으로 인식되고, 그 臥牛의 품안에 마을이 들어선 것이라고 한다.

위해 필요로 되는 龍虎의 條件 (당판을 어루 감싸 안은 듯 해야 함)을 갖춘 셈이다.

陽基, 陽宅과 관련된 風水的 立地解釋에서 중요한 문제가 主山의 設定이다. 主山은 藏風法에서 다루게 되는 四神砂 中 玄武에 해당한다. 明堂을 둘러싸고 있는 四神砂 中 主山을 어느 산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環境知覺的 側面에서의 인간들에 미치는 영향, 穴場위에 들어서게 되는 시설물들 (家屋, 宮宅, 寺刹, 墓地 等)의 方向이 달라지게 되며, 또한 都邑이나 村落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街路網의 配置나 그의 發展方向 等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主山과 더불어 마을의 後面에 위치하여 마을을 鎭護한다는 의미에서 鎭山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대체로 主山과 鎭山은 일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朝鮮初에 특히 중요시되는 鎭山의 槪念은 風水地理學의 槪念은 아닐지언정 그에 내포된 實用的, 象徵的 意味는 聚落立地에 대한 독특한 風水思考의 表出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主山이나 鎭山은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철의 北西季節風이 몹시 차디찬 풍토에서의 마을의 형성에 적당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으며 또한 마을을 鎭護, 表象하는 象徵的 意味를 지니고 있다. 九萬里 마을의 경우도 主山으로 삼아 마을이 기대고 있는 참남배기산이 北西쪽에 위치하여 좋은 防風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洞口밖의 도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인해 마을이 보이지 않는 30－40分의 時間距離밖에서도 "이제 마을에 다왔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실제로 이 마을에 정기적인 버스노선이 들어오기 전 (약 15년전까지만 해도) 마을주민들이 徒步로 출타후에 다시 마을로 들어올때 마을의 뒷산은 "이제 집에 다 왔다"라는 공통의 환호를 지르게 할 정도로 멀리서도(마을이 보이는 고갯마루) 다가왔다 한다.

보통 主山에 기대어 마을이 들어섰을때 그 空間 構成은 傾斜變換點에 의해 구분되는 山頂으로부터의 急傾斜部를 피하고 山麓緩斜面의 말단부에 마을이 위치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山谷에 立地할 경우 局地氣候的인 凹風의 影響力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實用的 측면과 山麓緩斜面에서의 삶(말단부)과 죽음(상단부)의 共存이라는 共生的인 우주관의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凹風이라함은 山谷의 低地를 향해 내리부는 바람으로 〈凹風者 山兩頭高 中腰低 陷如凹字 一樣其風來最急也〉[35] 이는 小氣候學에서의 冷氣湖現象(cold lake)을 연상시키는데, 『雪心賦』에서는 「만약 山谷에 살고자 하면 우선 凹風을 두려워해야 한다』[36]라 하여 그의 영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實用的 側面외에 山麓緩斜面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混合的 空間構成에서 특히 상단부를 점하는 陰宅의 입지적 조건들은 위락공간적 타당성에 비추어 볼때 그 의미가 새롭게 드러난다.[37]

명당판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四神砂의 제요건들은 環境心理學的 (environmental psychological)인 映像을 인간들에 부여해 줄 수 있게 되고, 또 마을의 內部空間은 洞口에 의해 外部空間과 자연스럽게 分離됨으로써 당판에 거주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環境知覺的(environmental perceptional)인 心理的 安定感을 가능케 해주는데, 이러한 空間感·空間配置가 虛弱할 경우 風水에서는 여러 補完을 하게 된다. 가령 四神砂가 서로의 관계상 변화시킬 소지가 있다면 그에 대해 壓勝을 한다든가 洞藪나 人工的 建築物의 築造와 같은 裨補의 方法[38]을 취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자연적 성국의 缺處를 變化시키거나 補하여 人爲的으로 吉局을 作成하려는 즉, 인간들이 환경을 적절하게 질서지워 나가는 태도의 중요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형, 지세를 그대로 둔채 그의 영향을 직접 받아들인다고 보았던 서양의 環境決定論(environ

35) 『雪心賦正解』, 卷四, 「論陽宅」
36) 『雪心賦正解』, 卷四, 「論陽宅」
37) 이에 관한 연구로 「崔昌祚, 1978(b), "陰宅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解釋," 地理學 論叢, 第5號」이 있다.
38) 裨補說은 한국풍수의 始祖라 할 수 있는 道詵의 風水說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방법은 ①鎭護를 위한 裨補寺塔 ② 補虛를 위한 造山 ③ 防殺衛護를 위한 壓勝物의 設置 ④ 植樹 등이다.(村山之順, 1931, 朝鮮の風水, pp.275～294.) 중국에도 道詵의 裨補說 이후이긴 하지만 明代에 裨葬의 方法으로 法葬이라는 일종의 裨補說이 있었는데 이는 묘터를 성형수술하는 법이다.(崔於中, 1988, "「道詵秘記」는 어떤 책인가," 月刊 山, p.220.)

mental determinism)에 비해서 훨씬 可能論(possibilism)적 입장에 가깝다고 보여진다.[39] 또한 마을이 자리잡고있는 內部空間은 周邊의 山形地勢에 의해 洞口(緩衝空間)와 外部空間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외부에의 심한 노출을 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外部와의 關係를 무시한 閉鎖空間으로서가 아니라 답답하지 않고 아늑하며 따뜻한 공간배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듯 마을의 內部空間이 外部로부터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李重煥의 『擇里志』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듯이[40] 그 자체로서의 閉鎖化된 空間構成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日射등과 관련해 주변산세들이 조화롭게 유지됨으로써 그에 감도는 명당판의 氣運이 유지되고 있다는 風水的 요건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다. 得水法

風水에서 물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은 風水의 名稱, 術法上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령 『葬書』에는 「生氣는 바람에 실리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머무는 까닭에 바람과 물 즉, 風水라 한다. 이런 이유로 風水의 法은 得水가 우선이고 藏風이 그 다음이다.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故爲之風水,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41]라 했고, 『人子須知』에서는 「地理에서는 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 龍은 水가 보내지 않으면 오는 바를 밝힐 수 없고 穴은 물을 만나지 않으면 그 그침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 龍非水送則無以明其來 穴非水界則無以明其止〉」[42]라 하여 生氣의 取集과 관련해 水의 意味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九萬里의 경우 마을이 들어선 자리에서 볼때, 그 물길은 錦山郡 珍山面·福壽面의 여러 마을을 수십리길로 굽이굽이 달려와 主山과 龍虎를 감싸안으면서 右側으로부터 마을 前面을 유정하게 흘러 그 水口處에서 조용히 꼬리를 감추듯(右回) 빠져나간다. 그 흐름은 결코 작은것이라 할 수 없으되(여름철 홍수시는 특히 그러하다) 마을을 위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한발의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흐름을 항시 유지한다.[43] 主山으로 이어지는 來龍의 脈勢에 대해 조금은 위압을 주는 感이 없지 않으나 그 흐름의 유정함과 굴곡으로 인해 다른 촌락의 예사 물길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정도이다.

그러나 마을을 감싸안은 主山의 뒷편에 主山으로 來龍의 脈勢가 束氣되는 부위에 대해 거의 冲射될 정도로 물길이 치닫는 것은 유의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 B〉 즉, 앞서 看龍法에서도 主山으로의 束氣됨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에 더불어 水의 山에 대한 相配됨의 要件도 당판의 生氣醇化라는 측면에서 지나치리만큼 逆勢이다.

이렇듯 得水는 生氣의 멈춤과 취집이라는 면에서 특히 중요하며 그것은 流動·變化를 그 본성으로 하면서도 水自體로서 또는 山과 더불어 그 조화됨을 잃어서는 안된다. 이런점에 유의해 得水法에서 살피게 되는 제조건들에 대한 聚落立地論的 側面의 解釋은 다음과 같다.

첫째, 聚落이 立地하게 될 場所가 갖출 地理的 條件으로 필요불가결한 것이 물의 구득과 사용이다. 『管子』의 「水地篇」·「度地篇」, 『擇里志』, 『人子須知』에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風水에서 生氣의 멈춤과 관련해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서의 水에 대한 重要視는 주어진 풍토에서의 경험의 축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령 中國風水의 경우 山보다도 오히려 得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 역시 風水가 흥성했던 중국북부지방의 강수량이 적었던 상황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44] 이에반해 山水結合의 양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한국의 경우는 得水에 치중하기 보다는 得水와 藏風이 자연스럽게 共論된다.

---

39) 崔昌祚, 1988, "道詵國師의 風水地理思想 解釋," 先覺國師 道詵의 新研究, 靈岩郡, p.156.

40) 「擇里志」, 「卜居總論」, 地理
〈凡人受陽氣以生天乃陽光也 少見天處決不可居 故野愈曠則其愈美〉〈最忌四山高壓日晩出而早入夜或不見北斗 靈光旣少陰氣易乘則或作神叢鬼窟 朝夕嵐瘴之候又使人易病〉

41) 『地理正宗』, 卷二, 「葬書」

42) 『人子須知資孝地理學』, 卷之六第一, 「水法」

43)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 형성이래 현재까지 큰물로 인한 재난은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44) 崔昌祚, 1986, 前揭論文, p.36.

둘째, 得水法에서 水의 吉凶과 관련해서 『雪心賦』나 『地理新法胡舜申』에서 말하듯 水는 山에 대해 「吉方來 凶方去」가 됨을 요하는 것이다. 이는 有機體가 생명을 유지·보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input-output system의 기능과 조건이 제대로 구비되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得(水原處, 들어오는 방향)은 龍穴의 입이 되고 破(水口處)는 그의 肛門으로서 得에서 얻은 물과 바람의 精髓(風水之精)를 穴場에서 흡수하고 찌꺼기를 破로 排泄하는 것이 되는데, 環境衛生學的 側面에서 쾌적한 생활공간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상·하수도의 건설, 위생시설물의 築造時 示唆點을 제공해 준다.

세째, 流動이나 變化를 그 속성으로 하고 있는 물의 流路를 人爲的으로 바꾸거나 막는 것은 역시 물의 順理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네째, 물은 變化나 流動을 그 本性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山과 더불어 그 조화됨을 잃어서는 않되며(陰陽論的이든, 體用論的이든) 得水法에서는 구체적으로 「山水環抱」·「山水逆勢」·「水口關鎖」·「水破長生」·「山河襟帶」등의 조건을 살핀다. 「山水環抱」나 「水口關鎖」는 물(水)이 穴場을 이루는 龍脈을 향해 直流直射함이 없이 穴場을 보듬어 감싸듯이 유장히 흘러 水口處(破)에서는 山과 더불어 중첩회류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는 生氣의 醇化를 위해 山과 會合하려는 물의 조건이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지역은 대체로 물이 曲流하는 안쪽(point-bar)에 상당범위의 충적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을이 위치할 터와 경지를 제공해 주는 셈이 된다. 『擇里志』에도 「水口는 협소하게 엉성하지 않고 반드시 關鎭이 있고 안으로 평야가 전개되는 것이 좋은데 關鎭은 서로 중첩될수록 훌륭한 地勢이다」[45] 라고 하였다. 「山水逆勢」는 穴場을 이루는 來龍의 脈勢와 穴場을 지나는 水流의 勢가 逆하는 경우로서, 이럴때 水流는 穴場을 호위하는 산에 의해 曲流를 하게 되어(環抱) 穴場은 곡류시 안쪽면에 형성되는 point-bar쪽에 위치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穴場의 前面에 있는 곳이 곡류하천의 공격면(cut-bank)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山水環抱」·「山水逆勢」의 조건을 갖출경우 穴場이 위치하는 point-bar쪽의 토양침식은 효과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夏季多雨의 지역에서는 여름철 하천의 범람으로 부터 穴場의 침수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水破長生」은 『胡舜申』에 의하면 〈水破長生 衰敗立至 得水法上〉이라하여 禁忌視하는 조건이다. 水破가 長生方位에 드는 穴場은 주위산들의 最高峰과 水口인 破方이 180° 의 正反對되는 局勢를 취하는 경우로서 명당터를 번쩍들어 破方으로 쏟아붓는 듯한 環境知覺的 樣態를 띨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아서는 느낄수 없지만 장기간 거주하면서 image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地勢的 不安感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46] 「山河襟帶」는 風水地理에서 뿐만 아니라 古來로 정치 군사의 中樞인 都邑選定의 중요한 지리적 조건이 되어 왔었다.[47]

이상과 같이 山과 더불어 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살펴볼때 산세자체의 흐름에서와는 달리 山水關係는 相補하면서도 變化가 있어야 좋고 그러나 지나치면 않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다섯째, 穴場에서 발원하는 水(內水)自體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穴前을 흐르는 外水와 穴場내의 內水間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得水法에는 이를 「合水의 原理」「內外水流逆勢」의 조건으로 삼아 땅의 길흉을 살핀다.

合水란 '물이합친다'란 뜻인데, 穴場을 호위하는 靑龍·白虎砂의 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穴場의 앞에서 합한다는 말로 穴場周圍의 地形地勢를 가늠할 수 있는 바가 된다. 合水의 理論을 風水에서 중시하는 것은 水의 祿이라하여〈水管財祿〉흩어지지 않고 穴場을 중심으로 정면에서 合水를 해야 陰陽水가 合하여 祿을 보전하기 때문이며[48] 이는 穴場周圍의 地勢가 均衡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合水의 環境이 조성되므로 결국 成局을 위한 來龍과 靑

---

45) 『擇里志』, 「卜居總論」, 地理 〈故尋相陽基必求水口關鎭內開野處着眼……〉

46) 崔昌祚, 1985, 8, "風水, 迷信인가 經驗科學인가 : 墓地와 住宅風水를 中心으로," 국토와 건설, 대한건설진흥회, pp.47~48. (一例로 坐向論에서 언급할 後天八方位上 당판내 최고봉의 산이 乾方에서 오고 水口가 巽方에 있는 경우 水破長生에 해당됨.)

47) 李丙燾, 1980, 前揭書, p.25.

48) 崔昌祚, 1978(b), 前揭論文, pp.47~48.

龍·白虎의 調和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靑龍·白虎砂의 계곡에서 발원하는 물이 穴場의 前面에서 合水할 경우 穴場 左右側의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또한 合水時 그 流速이 減少됨으로 인해 穴場을 호위하는 산세들의 침식현상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內外水流逆勢」는 明堂에서 발원하는 內水(明堂水)와 明堂前面을 흐르는 外水(客水)의 들어오고 나가는(來去) 方向이 각각 吉方인 경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內外水의 관계를 말한다. 『雪心賦』의 水法方位法에 의한 水流의 吉凶判斷解釋은 15° 간격차로 나뉘어지는 二十四方位와 관련된 緯學的 解釋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은 內外水流逆勢의 局面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內外水流逆勢의 지형적 조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시 급속도로 穴場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 주며, 또한 內水와 外水가 만나는 지점도 보통 外水의 曲流에 의해 형성되는 point-bar쪽이 되므로 명당내의 지표수나 하수를 쉽게 排水할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다.[49] 이것은 공격사면쪽에서 유입되는 支流가 本流의 水壓때문에 배수불능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반해 point-bar쪽은 本流의 수압이 훨씬 낮기 때문에 支流의 배수가 공격사면쪽 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이다.[50]

여섯째, 물을 특히 살아있는 有機體로 보는 風水的 思考方式의 표출이 地下水이다. 人間定住를 위한 地下水의 중요성 외에 風水에서는 陽宅, 陰宅과 관련해 地下水脈上의 자리잡음을 필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살아있는 것은(生水) 살아남기 위한 운동을 끊임없이 하고자 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水脈이 지나가는 자리는 깨져야만 한다. 그것은 地下水가 물줄기를 공급받기 위한 자체운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自壞現象이기 때문이다."[51] 라고 했듯이 그러한 地下水의 生命運動에 의해 地上에 있는 人工建造物, 人間과 그 삶등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52]

라. 定穴法

以上에 열거한 來龍, 藏風, 得水의 제요건들을 살피고 나면 최종적으로 占穴 혹은 定穴을 하게 된다. 穴形은 千態萬象으로 그 모양이 매우 多樣한 것이 사실이지만 穴形四大格이라 하여 窩·鉗·乳·突의 四格의 이해만으로 穴形은 파악가능하며,여기에는 陰來陽受·陽來陰受의 陰陽論的 原理가 적용된다. 즉, 穴形은 地形의 凹凸에 의하여 陰陽을 구분하는데 龍脈이 도톰하게 凸形으로 튀어나온 모양을 陰이라하고 오목하게 凹형으로 들어간 모양을 陽이라 하여[53] 陰脈이 오는 아래에 窩·鉗의 陽穴이 있어야 하고 陽脈이 오는 아래에 乳·突의 陰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眞穴이라 불리는 곳에는 왕궁의 勤政殿, 郡縣의 官衙, 宗家宅 등이 위치하게 되는데, 九萬里의 경우 穴의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主山으로부터 볼록하게 내리치는 龍脈의 하단부〈그림 2. C〉 돌출한 부분에는 현재 齋室이 들어서 있는데, 이는 穴形四大格의 凸形에 해당되므로 陰穴이라 할 수 있고 결국 陽來陰受의 定穴原理에 따라 定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眞穴을 찾음에 穴形四大格으로 구분되는 지형적 특성의 陰陽論的 調和는 실제 마을의 위치선정과 관련해 合理的 側面을 찾을 수 있다. 가령, 凹形의 龍脈이 이어질 경우 凸形處에 위치하는 穴은 山谷에서 발원하는 물의 合水地點 언덕 (hill side)에 위치하는 형태를 보여 유량의 급변동시 그 피해를 면할 수 있다. 특히 環境衛生學的 側面에서는 多孔性地質(porous soil)로 된 언덕(hill side)이 하수의 침투를 위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54], 이것은 하수의 배수와 악취·오물로 이한 해충의 번식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十字의 原理에 의해 作穴되는 곳은 균형잡힌 자연

---

49) 강길부, 1983, "풍수지리설의 현대적 의미," 정신문화 통권 제16호, p.158.
50) 權赫在, 1974, 地形學原論, 法文社, pp.56~58.
51) 林應承, 1986, 수맥과 풍수, 샛별, p.41.
52) 地下水가 地上의 諸現像 (人事)이나 生物, 人工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林應承, 1986, 前揭書」, 「李大雨, 1989, "水脈이 建築物과 樹木에 미치는 影響," 전북대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53) 術書에 따라 이와는 전혀 상반되게 窩·鉗(凹形)을 陰으로 乳·突(凸形)을 陽으로 보기도 한다.
54) 權肅杓 外, 1976, 最新環境衛生學, 集賢社, p.481.

환경의 제공이란 면에서 心理的 安定感을 주고 이러한 지형적조건에서 선정된 지점은 교차하는 두 개의 능선이 합쳐지는 곳이므로 하수처리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55]

또한, 『雪心賦』나 『人子須知』에서는 眞穴을 구함에 구체적인 환경적 조건의 파악에 따른 吉地選定보다 오히려 人間의 積善, 積德여부가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眞穴을 선택하기 以前에 그만한 인간의 수행조건이 있어야 하며 이에 비추어 땅은 실제 누군가가 주인이 될수 있다.〈積善之家必有餘慶 積不善之家必有餘殃〉」는 것이다. 결국 眞穴이 되기 위한 人間要素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産業立地論에서 行態主義的 側面의 意思決定時 需要, 供給, 費用 등의 제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실제 site선정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자의 psychic income이란 면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자의 psychic income이라 하면 그것은 기업의 속성과는 相異하게 이루어지는 心理的 要素, 가령 血緣·地緣·自我實現등의 맥락에서 최종입지점을 결정하도록 해주는 요건을 말하는데, 風水에서는 『땅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 듯 주어진 환경적 조건외에 인간요소의 측면이 실제 터를 잡음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兩者, 즉 산업입지론에서의 psychic income과 風水에서의 積善·積德과 관련된 인간요소의 重要視는 같은 內容性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風水에서 입지결정시 인간요소의 조건을 강조하는 측면은 현대의 제입지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人間의 要素에 대해 當爲的인 必要條件을 提示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施設物 配置의 基準 —— 坐向論

風水의 구성요소를 山, 水, 方位, 人間의 요소로 축약할때 그 중 方位에 관련된 術法이 坐向論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입지점을 찾아나가는 원리로서의 看龍法·藏風法·得水法·定穴法이 山水의 配列과 관련해 『立地選定의 原理』라고 한데 반해, 坐向論은 그러한 구체적인 입지점에 들어서게 되는 施設物 (예컨데, 宮殿에서의 勤政殿, 寺刹에서의 大雄殿, 一般住宅에서의 大廳을 포함한 本建物, 陰宅에서의 屍身이 눕게 되는 壙中)들을 배치하는 기준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方位의 기본은 向의 名稱과 象徵的 意味에서 나타나듯 易이 되는데,이러한 易卦를 중심으로하여 方位의 名稱을 담고 있는 것이 羅經 혹은 佩鐵이라 일컫는 羅針盤이다. 그런데, 風水坐向論에서 쓰이는 方位構造中 가장 보편적인 것은 二十四方位로서, 羅經에는 陰陽·五行·八卦·十干·十二支 等을 同心圓에 새기어 各 方位를 分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장에서는 坐向의 方法, 그에 대한 길흉판단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村落을 構成하는 諸家屋들(陽宅)의 坐向方位에 따른 길흉판단을 「東四宅－西四宅論」에 따라 시도해 보았다. 「東四宅-西四宅論」은 建築物의 配置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상과의 관련성을 중요시하는 건축의 方位에 관한 대표적 내용으로 그 理論的 核心은 周易의 八卦이다. 즉, 「東四宅－西四宅」에 해당되는 각각의 방위를 설정한 후에 실제로 마당이나 垈地의 中心點을 기준(「測定의 基準位置」)으로 「大門의 位置」와 「建物의 中心位置(主)」를 『向方』으로 측정하여 이들 측정된 방위간의 東西四宅의 配合關係를 살피는 것이다.[56]

〈표 1. 東西宅, 西四宅의 設定〉

八卦	東四宅	坎(北)	震(東)	巽(南東)	離(南)
24方位		壬子癸	甲卯乙	辰巽巳	丙午丁
八卦	西四宅	艮(北東)	坤(南西)	兌(西)	乾(北西)
24方位		丑艮寅	未坤申	庚酉辛	戌乾亥

이러한 測定의 節次를 통해 「建物의 中心位置」와 「大門의 位置」에 대한 方位가 결정되면 그 兩者間의 配合關係를 통해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써 東西四宅의 配合關係, 陰陽論的 構成關係, 五行의 相生·相剋關係를 살피게 된다. 東西四宅의 配合關係는 兩者의 方位가 同一四宅의 방위안에 배치되는 것을 理想的인 배치로 보며, 陰陽論的 構成은 陰陽의 調和를 또, 五行의 관계는 相生일 경

55) 崔昌祚, 1978(a), 前揭論文, p.35.

56) 여기서 看法의 順序는 먼저 大門을 보고 다음에 主를 보기때문에 門八方位와 主八卦方位가 조합으로 배속되면 定門定主 六十四形이 이루어지고 이 六十四形 각각에 따라 그 吉凶을 論한다.

우를 理想으로, 동일한 경우는 보통 또, 相剋인 方位는 나쁜 상태로 본다.

결국 건물의 방위상의 평가는 이상의 3가지 조건을 綜合, 分析하며 그 중에서도 東西四宅의 配合與否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방위상의 陰陽과 五行의 관계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여건이 된다.[57] 즉, 건물과 대문의 方位가 同一한 四宅의 方位안에 배치된 경우에는 비록 陰陽이나 五行의 관계는 좋지 못하여도 吉하며, 陰陽과 五行도 調和와 相生을 이룰 때는 가장 理想的인 方位의 배치가 된다.[58]

九萬里 지역은 다음부분에서 밝힐 形局論에서 보겠지만 마을의 前面에 있는 '뱀'으로 인식되는 朱雀砂를 왼쪽으로 둔채 대부분 南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東西四宅論」에 의해 그 向의 吉凶을 보건데, 구체적으로 그에 입각해 건물을 배치시키지는 않았겠지만 風水的 思考觀念에 따른 시설물 배치의 결과와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앞서말한 것처럼 坐向論 자체가 오랜 經驗을 바탕으로 한 經驗則이라는 점[59]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그 술법에 따른 시설물 배치보다도 주어진 環境的 條件에 따른 適應의 結果라고 보여진다. 단지 看龍法, 得水法에서 살펴보았듯이 主山으로 束氣되는 부분으로의 水의 冲射됨이 유의되어 진다.

지금까지 家屋의 吉凶判斷과 관련해 東西四宅論에 입각한 해석을 시도해 보았는데, 坐向과 관련된 實用的, 合理的 측면의 성격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건물의 배치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념은 建物의 內部空間이 效率的인 機能에 그 주된 목적을 갖고 있으며 大門은 단지 外部와의 出入에만 필요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60] 그런데, 東西四宅論에서는「大門의 方位」를「主建物의 方位」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大門을 外部의 氣가 出入하는 通路이자[61] 穴 (內部空間)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東西四宅論에 의한 시설물의 방위배치가 主建物의 用途가 갖출 效率性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대문을 통해 출입되는 외부의 氣와 穴의 氣間의 調和性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大門以外의 다른 부건물 즉 화장실, 하수도, 창고 등의 오염물이 들어있는 공간이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은 본건물의 四宅方位와는 相反되는 方位에 두어야 吉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볼때 시설물을 배치시키는 坐向方位와 관련된 東西四宅의 理論은 建築空間의 具體的인 設計를 위해 충분히 示唆點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東西四宅論에 의해 本建物과 大門의 方位가 결정되었을 때 특히, 內部空間(本建物)과 外部空間사이의 경계에 위치하는 大門은 사람들의 출입과 관련해 볼때, 本建物(穴)에 대해 直射할 듯한 방향으로 자리잡지 않는 셈이 되어 외부에서 本建物 (外部와는 또 다른 意味의 空間)로 들어오기전 어느정도의 心理的 安定을 시켜줄 수 있는 環境心理學的 餘裕空間(緩衝空間)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갖는다. 이것은 效率性 爲主의 空間活用이라는 측면에 대해, 보다 人間의 心的安定感과 관련된 調和의 空間配置를 추구하고자 함을 말한다.

셋째, 坐向論에서 基本方位의 役割을 하는 二十四方位는 태양의 움직임 즉, 季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二十四節氣와는 一對一의 對應關係를 갖는데, 이것은 坐向論에 대한 氣候, 風土的 解釋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62]

넷째, 坐向으로부터 感應받을수 있다는 原理는 風水本質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의 기본출발이 各方位마다 陰陽五行이 주어져 있고 그 方位에 따라 陰陽五行의 氣가 흘러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陰陽五行과 風水의 結合이 특히 坐向論에서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陰陽五行說이란 것을 風土를 綜合的으로 판단하여 體系化

---

57) 朴時翼, 1987, "風水地理說 發生背景에 關한 分析研究 : 建築에의 合理的인 適用을 위하여," 고려대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p.166.
58) 朴時翼, 1987, 前揭論文, p.173.
59) 崔昌祚, 1984, "風水와 坐向," 空間, 공간사, p.144.
60) 朴時翼, 1987, 前揭論文, p.165.
61) 『雪心賦』,「辯論篇」, 陽宅門向辯 (陽宅首重大門者 以大門爲氣口也……大門者 氣口也……)
62) 崔昌祚, 1982, 前揭論文, pp.101~102.

시킨 論理構造라고 볼때[63], 결국 그에 내포된 相生·相補의 世界觀, 自然觀이 風水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地理觀으로서의 風水地理學에 내포돼 있는 調和와 均衡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구의 사상적 배경에 맥을 잇는 지리학과 더불어 風水에 대한 地理學的 接近의 重要性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形局論

形局論은 지금까지의 經驗科學的 論理體系를 구성하는 제원리들에서 살피게 되는 龍, 穴, 砂, 水의 조건들 외에 地勢의 外觀에 의해 그 感應여부를 판단하는 最後의 綜合的 段階이다. 우선 山形을 판단키 위해 그 기본적인 모양을 五行說에 기초하여 다섯가지로 구분하는 五星法을 들 수 있는데, 五行說의 근본은 剛柔와 같이 書經의 洪範중에 있으며 洪範 九疇의 차례는 水, 火, 木, 金, 土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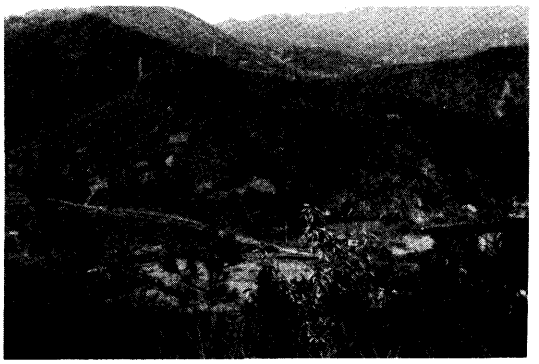
이러한 五星에 기초하여 形局을 論할때 그것은 人, 物, 禽, 獸로 四大分되며, 『雪心賦正解』에 의하면 「木星과 火星은 주로 사람의 모양(仙人, 將軍, 玉女, 漁夫 等)에 金星은 날짐승(鳳凰, 金鷄, 기러기 등)에 土星은 獸形에 (말, 소, 쥐, 사자, 호랑이, 코끼리, 거북 등) 그리고 水星은 용과 뱀종류에 많이 대비시킨다.〈如木火二星多結人形……, ·金星多結禽形……, 土星多結獸形……, 水星多結龍蛇形……〉」[64] 고 하였다.

九萬里의 경우 主山, 案山과 朱雀砂에 대한 形局의 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을을 외부로부터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案山은 두꺼비에 〈사진 1〉 또 마을 前面에 水에 의해 양분된 朱雀砂는 각각 뱀(右側) 〈사진 2〉과 학(左側) 〈 사진 3〉에 비길 수 있다. 五星法에 의한 마을 주위 산세의 대체적 구분은 臥牛形으로 알려진 主山은 土星으로 〈그림 2. Z〉 두꺼비와 鶴에 해당하는 산세의 형은 五星의 金星〈그림 2. W, Y〉에 속하며 두꺼비를 향해 꿈틀거리면서 내리치는 뱀의 山形은 水星〈그림 2. X〉에 해당한다.

이 마을에 있어서 이와 같은 三者 (뱀-두꺼비-학) 關係에 의한 땅의 성격은 실제로 入鄕祖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마을주민 대부분에까지 전해오는 說話는 이를 잘표현해 주고 있다. 예컨데,'뱀이 두꺼비를 먹이로 여겨 잡아먹고자 그것을 향해 내리치는데 갑자기 학

〈사진 1. 洞口에서 바라본 두꺼비산의 전경〉

〈사진 2. 主峰에서 바라본 뱀산의 전경〉



〈사진 3. 主峰에서 바라본 학산의 전경〉

63) 崔昌祚, 1986, 前揭論文, p.35.
64) 『雪心賦正解』, 卷四, 「論穴形異同及沙水凶形應驗」

이 나타나 날카로운 부리로서 뱀대가리를 쪼고자 하니 그 뱀은 학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어렵게 급정지했어야 했고 그와 같은 급정지로 인해 뱀의 등 몇몇 부위들이 불룩불룩 튀어 나왔다'라든가, '이 근처를 지나치던 懷德黃氏 문중의 사람이 "이곳은 3가지 짐승이 서로 경계하여 살아나가는 相生의 지역으로 특히 土生金의 五行과 관련해 보더라도 土가 色으로 볼라 치면 黃氏의 누루황 (黃-黃色)이요 우리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 부자로서 될 좋은 자리다" 라고 하여 자리잡기를 정했다' 라는 이야기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주어진 環境的 條件에 대한 適應形態는 실제로 이들 山勢의 形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 一例로 과거 이 마을에 婚禮·葬禮가 있을때 참남배기산에서 두꺼비산으로 이어지는 등허리부분 (현재의 洞口)은 마을의 주령을 밟는다 하여 넘나들지 못하게 했다거나, 약 30년전 '뱀'에 해당하는 山에 墓를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뱀의 눈을 찌른다 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던 일, 심지어 그 산에 묘를 썼을지라도 石物을 따로이 뱀의 배부분 (묘판이 아닌 그 산의 아랫부분)에 세워 그 뱀의 行을 멈추게 하려 했다는 것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形局과 관련된 예들은 九萬里만이 아닌 韓國의 傳統聚落(都邑, 郡, 縣, 自然部落 等)의 도처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65], 이는 形局論이 中國風水書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주로 『山水圖』, 『名山論』, 『巽坎妙訣』등 한국에서 쓰여진 風水實用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形局論에서의 所應的 側面의 강조가 韓國風水의 한 특징이라는 점[66]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形局論과 관련해 그에 내포된 合理的, 實用的 側面의 것들은 우선 形局이 주어지는 立地點의 地勢的 特徵을 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데, 보통 形局이 붙여지는 局面의 形勢는 窩, 鉗이라는 凹형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취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산세의 조건이 盆地狀의 地勢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盆地狀의 地勢에서는 마을의 內部空間과 外部空間이 일부분의 open된 한면(洞口)을 통해 연결돼 있으며, 이는 穴場內部에 대해 外部로부터의 直接的인 露出을 피하게 해줌으로써 心理的 安定感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盆地狀의 경우 盆地를 형성하는 주위산의 계곡에서 발원하거나 마을로 흘러드는 물이 豊富함으로 인해 用水의 구득이 쉽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마을이 들어서게 되는 지점은 당판중에서도 凸처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택함으로써 (陰陽의 原理에 의한 定穴) 큰 홍수에도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現代의 合理性, 機能性, 效率性 위주의 地域開發과 관련해 風水形局論에서의 所應的 측면은 具體的으로 그 示唆點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컨대 얼마전 「忠南論山郡頭磨面」의 「新都內新都市建設計劃」이 그것이다. 이는 鷄龍山의 천황봉을 향해 날아오르는 金鷄飛翔形으로 이 지역의 형국을 파악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風水形局論이 마을주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에서의 적응형태 (九萬里의 예처럼 葬禮나, 坐向論에서 밝혔듯 家屋의 配置와 관련된 適應 등)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처럼 匿名의 劃一的 空間으로 변화되는 환경에서 '對象化 되어버린 空間에서의 劃一化된 人間'보다는 '場所를 특징지어주는 제환경적 조건과 相互作用하는 人間'으로서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V 要約 및 示唆

지금까지 風水에 대한 理論的 考察 (起源 및 用語, 論理體系)과 村落에 대한 風水地理學的 解釋을 통하여 風水地理學에 내포되어 있는 聚落立地論的 側面을 살펴보았다.

우선 風水의 起源에 대해 人間-環境間 相互作用 속에서의 實用的 側面(用水, 氣候·氣象條件), 또 風水의 本質的 요소인 氣와 관련된 본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원래 風水의 시작은 살아나가는 사람들(生者)을 위한 陽的인 風水가 먼

65) 宅地가 자리잡은 지역에는 各樣의 風水的인 類型을 갖고 있다.
(玄斗鎔, 1978, "韓國建築의 陽宅論에 관한 考察," 大韓建築學會志 第22卷 80號, p.45.)

66) 崔昌祚, 1986, 前揭論文, p.37.

저이고 후에 墓地相占의 陰宅風水가 덧붙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風水의 논리체계를 「立地選定의 原理(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와 「具體的인 施設物을 配置하는 原理로서의 坐向論」, 또 지역에 대한 풍수종합적 이해를 위한 「形局論」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지역에 대한 풍수지리학적 해석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연구지역인 九萬里의 風水地理的인 重點的 特性은 두가지로 나타났다. 즉, 마을의 전체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마을 뒷산(主山)으로의 來龍의 束氣됨과 그 部位로의 물길의 冲射됨이 그것이고, 이렇듯 주어진 풍수여건하에서 실제로 入鄕祖나 마을주민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마을주위의 산세들에 대한 形局들이었다.

세째, 이와같이 村落에 대한 風水地理學的 解釋을 통하여, 聚落의 立地와 관련된 풍수의 제논리들을 살펴보았는데, 제측면에서 그 實用的·合理的 妥當性을 찾아볼 수 있었다.

「看龍法」에서는 來龍의 規模에 따른 인간거주지의 使用與否, 祖山으로부터 마을의 主山까지의 龍脈勢의 흐름과 관련해 마을의 당판이 갖는 象徵的 意味, 또 風水에서의 有機體的·全一的(holistic) 토지관과 관련해 최근 環境問題등에의 시사점 제공의 가능성등을 볼 수 있었다.

「藏風法」에서는 主山·鎭山이 취락의 形態的 構成이나 成長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또 防風·Landmark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판주위의 산세에 따른 心理的 影響등을 보았다.

「得水法」에서는 生氣의 聚集·山과 물의 會合이라는 측면에서의 水의 중요시가 실생활에 있어서의 用水나 그의 處理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 「山水環抱」·「山水逆勢」·「水口關鎖」등의 風水에서 필요로 되는 제조건이 실제 취락의 입지나 유지를 위해 필요로 되는 환경적 조건(마을터, 耕地의 제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水破長生」·「山河襟帶」와 같은 風水의 조건은 인간심리에 미치는 환경의 조건이나 군사전략상의 제조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또 水와 水간의 관계로서 필요로 되는 「合水의 原理」나 「內外水流逆勢」의 조건은 마을의 입지를 위한 주위환경의 조화됨이나 지형학적 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리잡음과 관련된 「定穴法」에서는 環境의 調和로운 利用(陰陽論的 原理에 의한 site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입지점 선정시 人間要素의 중요시라는 제조건을 보았다.

시설물의 배치와 관련된 「坐向論」에서는 風水에서의 坐向의 중요시가 지나친 理論分析 以前에 그것이 하나의 생활상의 經驗則이라는 점, 또 「東四宅-西四宅論」에 따른 가옥의 배치가 건축계획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風水綜合的 理解와 관련된 「形局論」에서는 대부분의 인간거주지가 形局을 취함으로 그에 따라 입지점의 결정이나 인간행태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 또 地域開發과 관련해 形局의 파악에 따른 計劃에의 반영등을 볼 수 있었다.

A Locational Interpretation on the Settlements from the Viewpoint of P'ungsu

ABSTRACT

Kwon, Seon-Jeong

P'ungsu has significantly acted on the locational selection and the laying out of historical cities, villages, private houses, and graves as a traditional geographical thought of Korea. This can be easily recognized by the *P'ungsu*-related researches of many disciplines, where *P'ungsu* is not considered as just a technique of placing graves, but rather understood as a traditional thought on the earth by Korean people to find the implied ideas and practical aspects.

This study, by identifing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settlements from the viewpoint of *P'ungsu* which is recently arising an increasing interest, aims to interprete the locational validity of settlements involved in them. As such, this study excludes as possible the elements which lead us to recognize *P'ungsu* as superstitious and mysterious, instead examines reasonable and practical aspects included in *P'ungsu* with a specific study region centering on *Kannyong-bop*(看龍法), *Changp'ung-bop* (藏風法), *Tuksu-bop*(得水法), and *Chonghyol-bop*(定穴法) as principles of locational selection, *Chwahyang-ron*(坐向論) as a basis of placing concrete facilities, and *Hyongguk-ron*(形局論)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o be the following.

First, the origin of *P'ungsu* which has been historically recognized as *Umt'aek-P'ungsu* (陰宅風水 ; *P'ungsu* for the dead) was examined in two aspects ; a practical aspect of interaction between men and environment, and an essential aspect with relation to *Ki*(氣) which is the pivotal core of *P'ungsu,* where *Yanggi-P'ungsu* or *Yangt'aek-P'ungsu*(陽基·陽宅風水 ; *P'ungsu* for the living) was found to have preceded *Umt'aek-P'ungsu* in the objective basis. This reflects the logical systems of *P'ungsu* are the logics of the earth accummulated in the process where men adapted themselves to the environment.

Second, an interpretation on the study region *Kumalli*(九萬里) reflected on the rearranged logical systems of *P'ungsu* generally showed two important features of *P'ungsu.* One representing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village is an overexcessiveness of 'the solidified part of *Ki* of mountain ranges(束氣)' especially towards *Chusan*(主山) in 'the extended-flowing mountain ranges (來龍脈勢)' and a directing-running of waterway against it. Under these conditions of *P'ungsu,* it was *Hyongguk* as to surrounding mountaneous features which had influenced on the behaviors of the villagers.

Third, practical and reasonable validities were revealed in a variety of aspect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n the village from the viewpoint of *P'ungsu.* For example, the extended-flowing mountain ranges, the surrounding mountaneous features of the village, the conditions of waterway, and the corresponding aspects of *Hyonggyuk* explained in the principles of locational selection(*Kannyong-bop, Changp'ung-bop, Tuksu-bop, and Chonghyol-bop*) and *Hyongguk-ron* are the requisites for gathering of *Saenggi*(生氣) which is the end of *P'ungsu.* If a region is well equipped with those conditions, it is as good as possessing an indispensable environmental condition for the living of people.

The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were briefly summarized above, following researche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P'ungsu* are highly encouraged in connection with the essential basis of *P'ungsu* (Chigi ; 地氣), ideas, planning and applications, and environmental issues which *P'ungsu* has as an oriental thought on the earth.

Keywords : Intuitional knowledge, Organizational view on the world, *Yanggi-P'ungsu* or *Yangt'aek-P'ungsu*, Principles of locational selection, Principle of placing facilities, *Hyongguk*